이슬람文庫 14

한국 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이슬람에서의 許用과 禁忌

HALAL & HARAM IN ISLAM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宣敎部 編譯

SCIENTIFIC RESEARCH HOUSE
KUWAIT

The Series No. 14 of Islamic Literature

HALAL & HARAM IN ISLAM

With Compliments of Sheikh Umar A. Kamel of Saudi Arabia. (본 서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쉐이크 우마르 카멜 씨의 헌금으로 출판된 것임)

Translated and Complied by Missionary Department of the Korea Muslim Federation.

차 례

❖ 차 례 ❖

이슬람에서의 許用과 禁忌

1. 하랄과 하람의 정의

하랄(HALAL) : 금지된 것이 아닌 허용될 수 있는 행위(하느님께서 금하지 않고 허락해 놓은 행위)

하람(HARAM) : 하느님께서 엄중히 금한 행위. 이를 어기면 내세에서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며 현세에서도 심판을 받게 된다.

마크로우(MAKROUH) : (혐오스러운, 괘씸한 행위) 금지된 행위이지만 그 정도가 하람만큼 심하지는 않다. 따라서 그 벌도 하람 보다는 가볍다. 그러나 이를 분별없이 되풀이한다면 하람을 범하는 셈이 된다.

2. 개요

1 성 쿠란이나 순나(사도 무함만의 전통)에 금지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행위는 가(可)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만·엘 화라시」(하느님께서 그와 더불어 기뻐하소서)는 말했다. 『우리의 예언자(그에게 하느님의 축복과 구원이 내리소서)께서 요리용 버터와 치즈 그리고 모피제품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말씀하시기를, 「하랄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람은 금지하신 것이나 쿠란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 사항은 모두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느니라」 하셨다.』 이 하디쓰의 귀절은 「엘 티르미지(El Tirmigi)」와 「이븐 모자(Ibn Mojah)」편에 기록되어 있다.

이 하디스, 즉 「사도님의 언행록」은 자질구레한 사항의 질문에까지 예언자가 답변해야하는 번거로움 대신, 총괄적인 법칙을 통하여 해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법칙이란 쿠란이나 순나에 금지되어 있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가(可)하다는 것이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면 인간의 행위에는 두 타입이 있다.

A. 신앙의 완성을 위한 종교행위

B. 현세의 삶을 의미하는 생활행위

종교적 행위, 즉 예배와 하지(멕카순례), 자카트(희사)와 단식 등은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인 까닭에 우리는 여기에 어떠한 것도 덧붙이거나 삭감할 권리가 없다. 예컨대, 우리는 아침 예배 때 두 라카트(回) 이상의 절을 하지 (화즈르) 못하고 저녁(마그립) 예배에서는 세 라카트의 절만 해야한다.

일상생활의 습관적 행위에 관하여, 쿠란이나 순나에 명시된 금지사항이 아닌 모든 행위가 가(可)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허락과 금기사항은 오직 하느님 홀로 행사하시는 권한 이다.

이슬람교에서는 허락과 금기에 관한 권한은 하느님에게만 한정되어 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도, 예컨대 주교든, 수도승이든 또한 왕이나 지도자라 해도 이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이는 쿠란의 수라 엘 수우-라(Sura't El Shoura), 즉 제 21장에 명시되어 있다.

『저들에게 알라와 동등한 자들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들은 알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 사항을 저들의 이익을 위하여 합법화시킨 자들이니라.』

[3] 일반적 법칙

우리 무슬림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무(無)로부터 창조하셨으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하람」과 「하랄」의 규정사항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설사 우리가 그 숨은 원리를 알 수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이해능력을 초월한 것으로서 우리는 다만 그 법칙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명령이나 금지는 단순히 그에 대한 복종을 요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런만큼 하느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것은 복종 그 자체인 것이다.

예컨대, 가령 당신이 어떤 회사에 고용되었다고 하자. 고용주가 당신에게 그 어떤 사항에 대하여 금지령을 내렸다면 그 회사에의 고용을 수락한 이상 당신은 명령에 복종해야만 한다. 이는 다만 설명을 위한 하나의 예(例)일 뿐,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종주권은 고용주의 그것과는 차이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지대한 것이다.

더우기, 우리는 어떤 행위에 숨은 원리를 파악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느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를 행해야 한다. 내가 단식을 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지 단식함으로써 신체가 민활해진다는 이유에서는 아니다.

4 이슬람교는 하나의 금지사항을 규정할 때 반드시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마련해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즉, 결혼을 허락해 놓고서 간음을 금지했으며 술을 마시지 말라고 금지했는가 하면 취하지 않는 다른 음료수를 허락해 놓았다.

5 「하람으로 유혹하는 모든 것 또한 하람이다」. 이는 이슬람교에서 정한 하나의 원칙이다. 예컨대 하느님께서 술을 금해 놓으신 이상 술을 지니고 있다든가 마신다든가, 이를 양조, 판매 혹은 술마시는 자와 함께 있다든가 하는 모든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다.

6 이슬람교는 하람에 관하여 속임수를 부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예를 들면 금지된 물건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를 허위로 정당화하려는 행위, 즉 음주금지조항에 기록된 말이 포도주(Wine)라고 해서, 포도주를 위스키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니까 따라서 위스키는 마셔도 된다는 식의 책략, 혹은 이와 비슷하게 생각해서 「Riba」나 「Usury」(둘다 고리대금이라는 뜻으로 전자는 아랍어, 후자는 영어이다)가 금지되어 있지만 Interest(이자)라는 말로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를 가(可)하다고 받아들이는 식의 모든 속임수를 이슬람교는 금지하고 있다.

7 무슬림들은 하람을 어길 우려가 있는 미심적은 행위를 피해야한다. 하랄이 명백하고 하람 역시 분명하지만, 하랄인지 하람인지 분명치가 않는 행위도 있는 만큼 무슬림은 여기에 주의해야 한다. 자기가 하는 행위에 확신을 못가질 바에야 아예 그 행동을 피하는 것이 나은 법이다. 그럴 경우 하람을 범하는 일은 없다.

8 하람은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연령과 지위, 신분과 재산의 고하를 따지지 않으며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평등한 만큼, 누구나 이를 어기면 똑 같이 벌을 받는다. 만일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에 의한 차별이지 피부색의 흑백에 따른 차별은 아닌 것이다.

이상의 설명은 하랄과 하람에 관한 개요이다. 다음으로는, 하랄과 하람의 세목을 소신껏 제시하려고 한다.

3. 음식과 주류에 관한 하람과 하랄

옛부터 식생활, 특히 동물성 식품에 있어서는 국가와 민족에 따라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달리한다. 식물성 식품에 관하여는 지금껏 아무런 논란이 없다. 이슬람교는 채식에 관한 한, 술로 변형되지 않는 것이라면, 포도로 만들었거나 대추, 보리 기타 어떠한 농작물로 제조되어도 이를 금하지 않았다.

또한 이슬람교는 마비상태나 무기력을 일으키는 음식은 무엇이든 금지해 놓았다. 이슬람교에서는 토착적인 음식도 그것이 좋은 음식이라면 모두 허락되어 있다.

이슬람교가 창시되었을 때 유태교인과 기독교인 그리고 이슬람교 이전의 아랍인들간에 동물성 식품에 관한 논란이 벌어졌다. 이에 이슬람교는 금지품목을 확정해 놓기를, 죽은 고기와 피, 그리고 돼지고기와 알라의 이름으로 잡지 아니한 동물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이것들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밝히고 있는 것이다. (알바카라의 장 172-173절 참조바람)

위 네 가지는 일반적인 금기사항인데 「마이다(Maida)」의 장에 다시 세목별로 상술되어 있다. 즉 죽은고기 항목에 대한 세목으로서 :

(5) 목을 조르거나 머리를 좁은 구멍 틈에 처박아 질식시켜 죽인 동물.

(6) 몽둥이로 두들겨서 죽인 동물.

(7) 높은 데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인 동물.

(8) 다른 동물로부터 박치기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죽은

동물.

(9) 사자에게 물려서 죽은 동물.

알라께서 위와 같이 금지하신 죽은 고기는 『너희가 제물로 바친 고기 즉 그것이 죽기 전에 너희 손에 들어 와서 너희가 이슬람식으로 잡은 동물』을 제외한 모든 동물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알라께서는 다음 사항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10) 우상에게 제물로 바처진 동물. 동상이나 돌 같은 것을 숭배함은 무엇이나 다 우상이니라.

생선류와 메뚜기류는 죽은 동물의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이는 바다에 서식하는 동물 전반에 해당된다. 우리의 예언자(하느님의 축복과 평화가 그에게 임하소서)께서는 바닷물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바닷물은 깨끗한 것이며 그 안에서 죽은 동물 또한 먹어도 좋은 음식이니라』

메뚜기류는 해양동물과 비슷하다. 또한 누구든지 굶주렸거나 하루 또는 그 이상을 먹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불가항력으로 간주하여 아무 고기나 먹을 수 있다.

1 정당하게 먹을 수 있는 동물

해양동물은 모두 정당하게 먹을 수 있다. 동물에는 육지의 것과 바다의 것이 있다. 바다에서 사는 동물은, 어디에 있었건간에, 살아있는 것이든, 죽은 것이든, 또한 무슬림이 잡든 비 무슬림이 잡든간에 모두 정당하게 먹을 수 있다. 알라께서 쿠란에 이르시길 『바다생선과 그 음식은 너희와 사막을 여행하는 카라반들의 음식으로서 정당한 것이다. (Almaidah장. 제 96절)』라 하셨다.

2 금지된 것

욱지의 동물에 관하여 쿠란은, 돼지고기와 죽은 고기, 피, 그리고 알라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죽인 동물의 고기만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해 놓았다. 쿠란은 또한 예언자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그는 합법적인 것과 금지된 것을 보여주느니라』라고 했다. 우리의 예언자(하느님의 축복과 평화가 그에게 임하소서)께서는 뾰족한 엄니나 독치를 가진 동물과, 뾰족한 발톱을 지닌 사자와 호랑이와 여우같은 맹수, 그리고 독수리, 매, 송골매, 솔개 등등의 조류를 모두 무슬림들이 먹어서는 안 될 동물로서 금지해 놓았다.

낙타와 소, 양, 닭 등의 가금류는 조건부를 달아서 정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정했다.

3 가금류의 시식에 관한 조건

(1) 가금을 잡을 때에는, 설사 나무칼이든 돌칼이든 간에 매우 예리한 도구로써 목의 정맥으로부터 단번에 피가 나오도록 잘라서 죽여야 한다.

(2) 목을 자를 때는 목의 앞부분인 인후에다 칼을 정확히 그리고 깊숙이 찔러서 단번에 죽여야 한다. 특히 목을 자를때는 식도와 양쪽의 경정맥을 한꺼번에 자르는 것이 가장 완전하고 좋은 방법이다.

(3) 가축을 잡을 때 알라의 이름외에는 그 어떤 이름도 말해서는 안된다.

(4) 죽이기 전에 알라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러야한다. 즉 「비스밀라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소리낸 후 도살해야 하는 것이다. 예언자께서 가로되 『알라의 이름으로 죽

이거나 피흘리게한 동물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 하였다.

정당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을 쓰는 그 숨은 뜻은 동물을 최단시간에 고통없이 죽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사냥

동물과 조류 중에는 그 맛이 매우 좋지만 인간의 손이 미치지 못하거나 쉽사리 잡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있다. 이슬람교는 이러한 동물에 관해서는, 인간이 이들을 보다 용이하게 구할 수 있게 하기위하여 가금류의 경우에서처럼,「비스밀라 알라후 아크바르」를 소리낸후 목이나 식도를 짜름으로써 정당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는 식의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이는 들판에서, 창이나 활이나 기타의 무기, 혹은 사냥개나 사냥매로 잡은 모든 사냥감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사냥감을 산 채로 잡았다면 이를 합당한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 우리의 예언자께서 가로되『사냥감에다 개를 풀때「비스밀라(알라의 이름으로)」를 말할지어다. 개가 사냥감을 잡아 왔을 때 아직 살아 있다면 그 때에는 가금류처럼 죽여도 좋으니라』하셨다.

5 술

술이란 알콜을 함유하여 이를 마시면 취기를 일으키는 액체를 말한다. 술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 그리고 신앙과 생활을 해친다. 이슬람교는 지혜와 더불어 이 세상에 온 종교인만큼 음주를 금했고 음주로 인한 유익보다는 그 해독을 광범하게 강조해 놓았다.

『마셔서 취기를 일으키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것은 술이니라.. 많이 마셔서 취하는 것이라면, 조금도 마셔서는 안되느니라』 비무슬림하고라도, 교환이건 아니건간에 술을 거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⑥ 마약

술은 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무엇이든 복용했을 때 뇌에 영향을 미치고 뇌의 합리적 사고작용을 변질시킨다면 이는 금지된 술이며, 알라와 예언자께서 최후의 심판날까지 금하신 것이다.

하쉬시, 아편, 코카인같은 소위 마약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인즉 이는 무기력과 신경의 마비를 일으키고 건강을 쇠퇴시키며 생기없게 만들 뿐 아니라 품행을 타락시키고 의지능력을 파괴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게끔 하는 등 이를 상용하는 자들은 사회의 병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규제는 다음과 같다. 정상적 인간을 변질시키는 것은 음식이든 음료이든간에 모두 금지되어 있다. (하람)

4. 의복과 몸차림에 관하여

이슬람교는 신도들에게 단순히 허락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항상 변함없이 외모를 고상하고 아름답게 지닐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의복에서도 알라께서 창조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즐거이 받아 누리도록 했다.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이 옷을 입는 목적을 두 가지로 보는 데, 첫째, 신체의 특정부분(생식기)을 가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장식을 위함이다. 장식과 멋진 외양에 몰두하기 전에 이슬람교는 우선 청결을 강조했다. 우리의 예언자(축복과 평화가 그에게 임하소서)께서 이르되『너희 몸을 깨끗이 할지니 이슬람은 깨끗한 종교이기 때문이니라. 신체와 의복과 예배장소가 깨끗하지 않다면 그 무슬림이 근행하는 예배는 받아드려지지 않는다. 이때 추가로 몸 전체를 청결케 하는 행위, 즉 대정(大淨)을「구슬(Ghusl)」이라고 한다.

금붙이와 비단은 남자에게 금지되어 있으나 여자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는 사치를 추방하기 위한 이슬람교의 계획인바 사치란 품행을 타락시키며 국가의 품위를 저하시키기 때문이다.

[1] 무슬림 여성의 복장

이슬람교는 무슬림여성들에게 신체와 그 돌출부, 특히 가슴과 허리와 둔부 같이 육감적인 부분이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해 놓았다. 또한 무슬림여성들은 남자의 옷을 입을 수 없으며 남성도 마찬가지로 여자옷을 입을 수는 없다.

2 가정

가정이란 인간의 안식처이며 자연의 폭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는 곳이다. 가정에서 인간은 사회의 제약에서 풀려나와 호젓하게 자유를 맛볼 수 있으며, 그의 몸은 긴장을 풀고 영혼은 휴식을 취하게 된다.

우리의 예언자(축복과 평화가 그에게 임하소서)께서는 신도들에게 항상 집을 깨끗이 관리하여, 청결의 종교 이슬람의 진정한 이미지를 반영하도록 권장했다. 청결은 무슬림을 다른 종교인들과 구별짓게 하는 하나의 특성인 바, 신(神)들이 더러움을 좋아한다고 믿는 다신교가 있기도 하다. 예언자(축복과 평화가 그에게 임하소서)께서 이르길 『알라는 착하시니 그는 착한 것을 좋아하심이라. 알라께서는 깨끗하시니 깨끗함을 좋아하심이라. 알라께서는 너그러우시니, 너그러운 자를 좋아하심이라. 알라께서는 훌륭하시니 훌륭함을 좋아하심이라. 그런즉 너희가 사는 곳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유태인들처럼 살지 말지어다』고 하셨다.

무슬림이 자기의 집을 장식하고 집과 의복과 신발 또는 자기와 연관되는 기타의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행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 다만 그렇게 하면서 남에게 도도하게 군다든지 남을 비방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슬람교에서 조상(彫像)을 금지한 이유는 인간이란 자기가 몹시 좋아하는 사람이나 성인들의 상을 만들고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를 신성화하여 마침내는 이를 우상으로 숭배하게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는 안 될지라도 조상을 만든다는것은 사치의 한 요소인 것이다. 혹성, 나무, 바다, 배, 산, 태양, 달, 별에 관한 평범한 그

림, 그리고 초목이나 무생물의 그림같은 것에 관해서는 이를 사진찍거나 그리는 행위 혹은 이를 소유하는 행위에도 아무런 죄가 없다. 또한 이슬람교는 아무런 목적도 필요도 없이 개를 집안에다 두는 것을 금해 놓았다. 사냥개와 집지키는 개는 허락되어 있다.

5. 직장의 선택

쿠란 : 「알물크(ALMULK)」장 제15절.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대지를 창조하셨나니 그 위를 걸어 나가며 생계를 꾸려 나갈 지어다』

이는 이슬람교의 원리인즉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을 인간에게 이로움이 되도록 해주시었다. 무슨 이유에서건, 심지어 기도와 예배에다 모든 시간을 바친다는 구실에서라도, 게으름에 빠진다거나 생계유지를 위한 일을 그만두는 행위는 무슬림에게 하람으로 되어있다. 하늘에서 금은보화가 무심코 떨어질리는 만무한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노동을 하는 데 있다. 무슬림은 농업이나 상거래 혹은 공업등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해야 하되, 어떠한 직업이라도 금지된 사항을 다룬다거나 금지된 사항에 조력한다거나 그것과 연관지워진 직업만 아니면 된다.

이는 무슬림사회의 신앙과 품행, 그리고 명예와 가치 기준에 해를 끼치는 직업들로부터 무슬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금지시킨 직업과 일은 다음과 같다.

매음, 춤, 섹스에 관한 그림, 조각, 주류양조업등이다.

이슬람교는, 상업이나 사업에서 사기라든가 부정행위, 독점 또는 금지된 것을 선전하는 일만 아니면 무엇이나 허락하고 있다.

6. 결혼과 가정생활에서의 하람과 하랍

[1] 본능

하느님께서는 땅 위에다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형상을 짓고자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를 완수하려면 땅 위에 인간이 끊이지 않고 살아서, 자기를 형성하고 증진하며 발전시켜 나가므로서 창조주에 대한 의무를 다하도록 운명지워 주셨던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종족을 보존하므로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느님은 인간의 육신에다 본능과 심리적 동기의 부분을 허다히 마련해 놓았다.

이러한 본능 중에서 음식을 찾는 본능은 굶주림을 채우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성적본능은 그 종족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성적본능에 관한 인간의 마음가짐은 다음 셋 중 그 하나일 것이다:

1) 본능을 자유로이 풀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욕구하는가를 알아보는 태도.
2) 욕구를 억제하는 태도
3) 한계를 정해 놓고, 지나친 억제나 도에 넘친 흥분없이 욕구를 행사할 수 있게끔 하는 태도.

[2] 이슬람교에서 금지된 사항

낯모르는 여자와의 은둔생활, 색정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 즉 신체의 특정한 부분(생식기)을 보는 것, 남자몸의 특정부분은 배꼽과 두 무릎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하며 여자에게 있어서는, 여자가 화장한 얼굴을 타인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의 모

든 부분이 섹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성적욕망을 어떻게 다스렸으며 간음과 간음으로 이끄는 수단이 언제 언제 금지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이슬람교는 또한 동성애도 금지해 놓았다.

3 결혼에 관하여

이슬람교에서 결혼이란 확고한 결합이며 굳센 계약으로서, 쿠란에서 말하는 평화, 우호, 자비, 그리고 번영을 그 정신적 결실로서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맺어지고 싶어하는 희망이 그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무슬림은 결혼능력이 있는 이상 어떠한 이유에서도 결혼을 기피할 수 없으니 설사 하느님을 경배하는 일에 자신을 송두리채 바치고 싶다는 구실하에서도 결혼을 회피할 수는 없다. 우리의 예언자(축복과 평화가 그에게 임하소서)께서는 젊은이들에게 충고하여 이르되 : 「너희 젊은이들아, 혼인지참금이 있는 자는 누구나 결혼을 해야하나니 결혼은 너희들을 성숙케하고 너희들의 생식기를 보다 잘 보호하기 때문이니라 하셨다.

무슬림은 마음먹은 여자와 결혼하기전에 미리 대면하여 실수라든가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무슬림은 이혼했거나 과부가 되어서 아직 법적규제기간에 있는 여자에게 청혼해서는 안 된다. 또한 형이 이미 청혼한 여자 역시 안되는 이유는 형제간의 우애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청혼한 자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까닭이다. 그러나 먼저 청혼했던 자가 이를 철회했을 경우에는 해도 좋다.

청혼의 수락여부는 일차적으로 여자에게 달려있다. 여자의 아버지나 후견인은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만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음에 열거하는 여자들과의 결혼은 엄금되어 있다.

(1) 아버지의 과부(과부가 된 계모)

(2) 어머니 또는 할머니

(3) 딸 또는 손녀

(4) 여자형제

(5) 아버지의 여자형제(고모)

(6) 어머니의 여자형제(이모)

(7) 형의 딸들(질녀)

(8) 누이의 딸들

4 수양가족과의 결혼금지

(9) 무슬림과 그의 양어머니와의 결혼은 금지되여 있다.

(10) 수양자매는 양어머니와 비슷하므로 그들과는 결혼할 수 없다.

우리의 예언자께서 이르되 『수양가족과의 결혼이 금지된 것은 혈족결혼이 금지된 것과 같으니라』하셨다.

5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과의 결혼금지

(11) 장모, 남자에게 장모란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된다.

(12) 의붓 딸, 즉 아내의 전남편 소생의 딸

(13) 며느리, 이슬람교는 양자제도를 폐지했기에 며느리는 양자가 아닌 친자식의 아내를 말한다.

(14) 한꺼번에 두 자매와 결혼하는 것. 이는 쿠란에 명시되어 있으며 예언자도 덧붙여 말했다. 『한 여자와 그녀의 고모를, 또한 한 여자와 그녀의 이모를 결혼을 통해 한꺼번에 관계를 맺을수는 없는 것이다』

(15) 아직도 결혼에 얽메인 기혼여자

다음의 두가지 조건하에서만 여자는 새로운 남편의 아내가 될 수 있다.

(a) 이혼이나 남편의 죽음으로 결혼관계가 취소된 경우.

(b) 쿠란이 명하는 바에 따라, 전 남편에 대한 애도를 표시하는 태도로서 근신기간을 완전히 끝낸 여자. 이 근신기간은 임신한 여자의 경우 해산때 까지이며 과부에게는 4개월 10주야이다.

이혼한 여자는 세 차례의 월경주기 동안 근신기간을 보내야 한다.(이는 젊은 여자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폐경이 지난 늙은 여자의 경우, 근신기간은 석달동안이다).

(16) 이교도 : 무슬림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단자와 결혼할 수 없다. 쿠란은 기독교인이나 유태교인들의 종교가 빗나가고 변질되긴 했지만 그들이 하느님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특별히 감안하여, 무슬림과 그들간에 결혼을 허락했다.

6 이슬람의 다처관(多妻觀)

한 명 이상의 여자와의 결혼 :

이슬람교는 인간이 지닌 타고난 품성에 가장 긴밀히 상응하는 종교이다. 이 종교는 현실과 타협하고 대처하여서 현실을 순화, 정제하고 현실을 낭비하거나 오용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 이같은 사실은 한 명 이상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이슬람법에 분명히 표현되어 있다. 확실하고 생동적이며 인간적인, 그리고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동기에서, 무슬림은 한 명 이상의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 이때 자신의 모든 부인들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아내들에 대한 대우를 평등히 취급하지 않고 어느 한 명에

게 치우쳐서 불공평하게 다루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해 놓았다.

한 명 이상의 여자와의 결혼이 가능하다는 법칙 :

이슬람교는 앞서 있던 모든 메시지를 완성한 결정적인 하느님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이 종교는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포용할 만한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왔다. 도시인만을 상대로 하고 유목민을 무시한다든가 하는 법이 없이 추운 지방과 열대지방을 포함하는 모든 지역에, 또한 어떤 특정한 세대가 아닌 모든 시대의 세세손손에 적용될 수 있는 종교이다. 이슬람교는 집단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욕망도 잘 파악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그들의 요구사항과 관심거리 전부를 헤아려서 참작해 준다. 만약에 어떤이가 몹시도 자식을 보고 싶은데 그의 아내가 임신을 못하는 여자라면, 두번 째 아내를 두어서 남편의 꿈을 실현케 하는 동시에 첫째 아내의 모든 권리를 조금도 손상되지 않게끔 하는 제도는 아내의 품위를 보다 높게 해 주고 남편에게 또한 편리한 것이 아닐까?

만약에 또 어떤이는 남달리 성적 욕구가 강하기에 여자와 오랫동안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남자라면 그의 아내가 불감증이거나 병들어 있다거나 혹은 월경기간이 매우 긴 여자라면, 한번 더 결혼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보다 더 고상하고 예의바르지 않을까?

인구조사 결과, 특히 전후에 상당수의 남자와 청년들이 전쟁에서 죽은 후에, 여자의 수가 남자보다 훨씬 많다면, 여자가 노처녀로 늙어가며 결혼생활과 그 행복과 보호와 사랑과 모성을 모르고 사느니 차라리 두번 째 혹은 세 번째 아

내로 결혼하는 것이 여자 자신을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이익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의 과다로 인하여, 그들은 다음의 세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1) 남은 인생을 준엄하게 내핍하면서 사는 길.

(2) 속박을 멋대로 박차버리고는, 매음생활을 하여 남자의 그릇된 행위의 대상이 되어 이슬람의 금기를 행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길.

(3) 이미 아내를 한 명 또는 두세명 거느렸지만 자기를 부양할 수 있는 남자와 결혼하는 길.

세번 째 길이 합당한 해결책이며 치료제라는 의견에는 아무런 의문이 있을 수 없다. 이는 이슬람식의 해결인즉, 쿠란에 이르되 :『믿는 이들을 위하여 알라보다 더 공정히 판단하는 자 누구이뇨? (Almaida장 제52절)』하였다.

상기한 내용은 한 명 이상의 여자와의 결혼에 관한 법칙인 바, 서구 기독교사회는 이를 거부하고 비판하면서도 그들은 남녀가 공히 정부를 소유하고는, 간음하는 여인이나 간음으로 태어나는 사생아에 대한 법적·도덕적 책임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개도, 책무도, 인가도 마련해 놓지 않았다. 그렇다면 둘 중, 어느편이 진실된 말씀이며 인간들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인가?

7 부부관계

쿠란은 결혼의 정신적인 목표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결혼은 감정과 정서의 안정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이것을 바탕으로한 부부간의 사랑과 우애와 친교는 이웃과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사는 집단에 화목을 가져다 주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슬람교는 월경중이거나 분만에 즈음한 아내와의 성교를 금지했는데 이유는, 많은 정신장애와 생식기에 염증을 일으켜 해롭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교는 여자의 항문으로 삽입하는 성행위를 금지했으며 부부간의 사생활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8 산아제한

다음은 우리의 예언자(축복과 평화가 그에게 임하소서)께서 옛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한 내용이다.

「알라께서 보내신 사도들의 시대에 우리는 여자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곤 했는데 알라께서는 이를 반대하지 않으셨다」. 이는 곧 산아제한을 정당한 것임으로 입증하는 말일 수도 있는 것이다.

9 이혼

결혼이란 하느님께서 남자를 여자와 맺어 주신 굳센 결합이다. 결혼한 부부는 고통과 희망의 양 극단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결혼이 실패했을 때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는 달리 해결의 도리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는, 부부가 함께 평화로이 사는 것이 불가능해졌을 때를 감안하여 이 가증스런 방법을 최후수단으로서 허락했던 것이다.

7. 공적생활에서의 하랄과 하람

1 신앙과 전통

건전한 믿음은 이슬람사회의 근간이다. 하느님의 유일성은 믿음의 정수이며 전적인 이슬람정신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슬람교는 세상에다 하느님의 계율을 세우고 무슬림의 생활에 뚜렷한 목표와 이해를 심어주기 위하여 사회를 더럽히고 있던 불신앙과 사회에 잔존하던 타락에서부터 이슬람사회를 정화함으로써 출발했다. 이슬람교는 또한 망상과 미신, 성직자와 돌팔이학자, 그리고 요술과 마녀를 통제했다 이슬람교는 비관주의와 편협성, 또한 인척관계나 피부색을 빙자한 주제넘은 생각을 금지했으니 자기가 행한 공적에 의하지 않고는 그아무도 남보다 우월할 수 없는 것이다.

2 상거래에 관하여

하느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서로간에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 아무도 원하는 것 전부를 소유하거나 충분한 부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의 예언자께서 이슬람의 메시지를 갖고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매매거래와 물물교환을 하고 있었다. 예언자께서는 그중에서 종교와 이슬람법(Shariat)의 원칙과 목표에 어긋나는 것은 금하고 그 나머지를 허용하셨던 것이다. 이슬람에 있어서 뜻깊게 적용되는 상거래상의 금지사항은 범죄행위에 공범으로서 조력한다거나 자기 기만, 독점, 혹은 거래하는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한다든가 그와 비슷한 경우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슬람교는 돼지고기와 술, 기타 금지된 음식과 음료, 그리고 동상과 십자가 등의 금지품목을 판매하는 것을 금한다. 또한 在庫가 다른 상점에는 전혀없는 품목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 되었으니 이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논쟁을 일으킨다거나 어느 한 편에게 가혹한 처사가 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돈을 사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슬람교는 가격 조작이나 백성에게 타격을 주는 독점행위, 그리고 이자놀이, 기만, 협잡을 금하고 있다.

초기 무슬림들은 그들의 상품에 흠이 있으면 무엇이나 솔직히 털어 놓았지 결코 감추지 않았다. 그들은 진실을 말했었고 거짓말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남에게 조언을 했었지 남을 속이는 일은 없었다.

침략자나 도둑의 약탈품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해 놓았으니 이는 노략질과 도둑질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사치는 윤리적, 사회학적, 경제적 면에서 인류의 이익을 위하여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사치란 인정(人情)이나 친절, 관대와 같은 미덕을 단절시키는 것이며 악의와 증오를 유발하여, 열광적 폭동과 파괴적 이데올로기를 낳는 계급투쟁의 발단이 되기 때문이다.

근세사를 보면, 고리대금업자들이 정부와 정책과 지방행정기관이나 국제기관에 가했던 여러 위협의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과 자본의 협력은 바람직한 것이다. 자금의 소유자는 전문가에게 돈을 주어 그 돈을 머리를 짜서 공정하고 건전한 사업에 투자하게끔 한다. 그들은 서로의 합의하에 가령, 반반씩, 4 : 1 혹은 3 : 1의 비율로 손익을 나누어 가진다. 만약에 사업이 망할 경우, 고용인은 직업을 잃게 되므로 손실은 자본가가 짊어질 것이다.

소위 「보험회사」라는 것이 요즘 유행하고 있는 새로운 사

업현상이다. 생명보험도 있고 재해보험도 있다. 이슬람교는 이러한 보험을 망상과 부정으로 인간을 타락시키고 인간의 마음을 미심쩍게 만드는 것으로 판정한다.

이슬람의 보험제도는 그 방법과 의미에 있어서 이와는 정반대의 것이다. 이슬람의 보험제도는 그 백성을 국가의 가호 아래에 특별한 의미로써 보장해 놓았다. 즉 사회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부양케 하거나 정부기금(BAIT ALMAL)에 의한 보장이다. 이슬람교가 신도들을 보장하는 법령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자카트(Zakat) 기금중의 「이재민에게 할당된 몫」이다. 이슬람의 학자들은 이 「이재민」을 화재나 홍수를 당하여 집과 재산이 없어졌다거나 그와 유사한 경우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안 내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 : 서울중앙사서함2865
☎ 794－7307 · 793－6908
※부산지회 : 부산직할시 중앙동 4가77－ 3
☎ 44－3506
※사우디지회 : Haji Ibrahim Jeon, P. O. Box 6720
Jeddah, Saudi Arabia.
☎ 50020

이슬람을 보다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기 주소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슬람文庫 14

이슬람에서의 許用과 禁忌

비매품

인 쇄 일 : 1978. 8. 12
발 행 일 : 1978. 8. 15
편 집 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선교부
발 행 인 : 한국이슬람교 중앙연합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732－21
중앙사서함 2865 전화 : 794-7307, 793-6908
인 쇄 처 : 한국문화인쇄사 : 777－3930 · 3931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١٤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الحلال والحرام في الإسلام

ترجمة وإعداد أحمد مون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

سلسلة الرسائل الاسلامية ١٤

اتحاد المسلمين الكوريين

الحلال والحرام في الإسلام

ترجمة وإعداد أحمد مون

دار البحوث العلمية